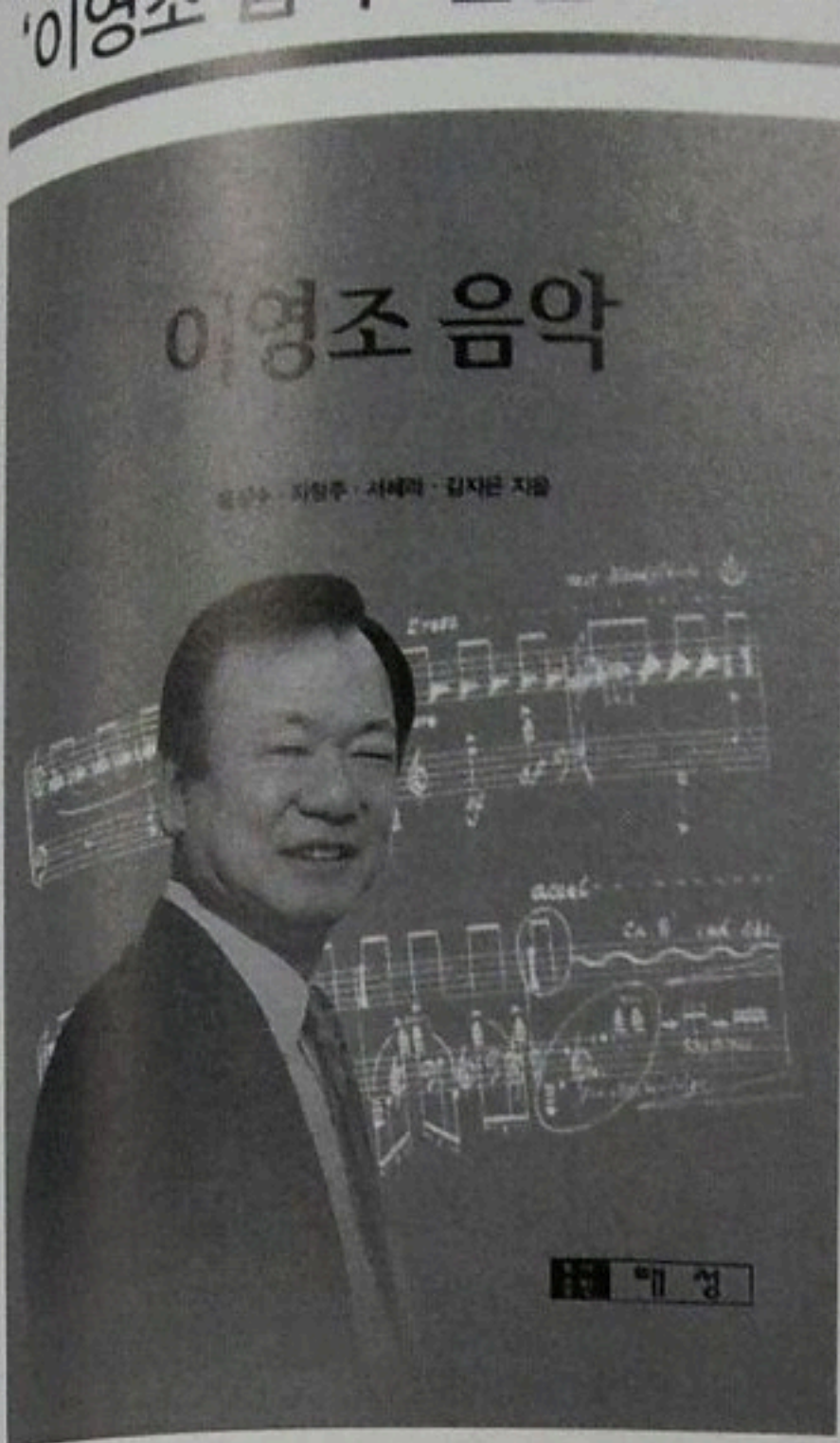




작곡가 이영조의 음악 세계와 대표작을 소개하는 『이영조 음악』(도서출판 태성)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한독음악학회의 홍정수, 지형주, 서혜라, 김지은은 '쿵더박', '번짐', '튐', '뿌림'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통해 이영조의 음악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 중심음 음악, 제3장 중심과 주변, 제4장 병행법과 쿵더박 등 총 10장에 나누어 그의 음악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부록으로 '이영조 작품 목록'과 '이영조 음반목록' 등을 제공한다.

2008년 한예종 음악원의 교수직을 정년퇴임하고 이어서 한예종 산하 예술영재교육원의 원장직을 맡아 국내 영재 발굴에 힘쓴 이영조 선생은 지난 2월 29일자로 연임 임기까지 모두 마친 후 작곡가로서의 본분으로 돌아와 최근 네 장의 음반을 출판하기도 했다.

제1회 유중 라이징스타 오디션 솔로 5명, 체임버 2팀 선발

국내의 젊은 음악도들에게 무대경험을 부여하고 전문연주자로의 발돋움에 될 무대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제1회 유중 라이징스타 오디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만 30세 이하의 젊은 음악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에 마감된 이번 유중 라이징스타 오디션에서는 DVD 오디션을 통해 솔로 부문 5인, 체임버 부문 2팀이 선발되었다. 솔로 부문에는 바이올린 김지윤(한국예술종합

학교 예술사, 전문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송혜림(서울대 음대 졸업, 동대학원 재학 중, 서울시향 단원), 비올라 신혜리(커티스 음악원 재학 중), 더블베이스 추대희(서울대 음대,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졸업), 첼로 홍승아(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재학 중)가, 체임버 부문에는 권영인(플루트, 비엔나 국립음대 예비학교,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서울대 박사과정 재학 중), 김기연(플루트, 이화여대 음대 및 피바디 콘서바토리 석사 졸업) 두오, 박경화(바이올린, 서울대 음대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 Advanced Studies 재학 중), 주숙현(피아노, 한양대 음대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 재학 중) 두오가 제1회 유중 라이징스타로 선발된 주인공들이다.

선발된 이들은 유중아트홀 무료대관, 홍보 및 인쇄물제작 등을 지원 받아 10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유중아트홀에서 개최되는 2012 유중 라이징스타 콘서트에 출연한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2012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지난 7월 21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폐막한 2012 윌리엄 카펠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체임버상, 청중상까지 거머쥐며 상금으로 \$28,000(한화 3천2백여 만 원)를 받았다. 1971년 시작된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는 1986년부터 미국의 피아니스트 윌리엄 카펠을 기념하며 개최되고 있다. 역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김원(2003년 3위), 최희연(1992년 1위없는 3위), 백혜선(1989년 1위)이 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서울예고 피아노과 수석입학 후 도미하여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줄리어드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2004년 한국 음악영재의 등용문인 금호영재콘서트에 데뷔했고, 이후 2009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로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뉴욕무대에 데뷔하였다. 2010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6위에 입상하기도 했으며, Robert McDonald와 Seymour Lipkin, 신민자, 김선화를 사사하였다.